

# 사립대 10곳 중 3곳, 직원 채용시 출신학교로 차등

**사격세·강득구·이수진 의원  
92개 학교 직원채용 현황 분석**

70개 학교, 채용공고에 '학력제한'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 1곳 불과  
학력만 기재하는 학교는 3곳 뿐

19곳 신체조건, 22곳 가족사항 기록  
"직무와 무관 기재 요구는, 법 위반  
공정한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과 강득구, 이수진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 '공정한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사격세

사립대학 10곳 중 3곳이 직원 채용시 출신학교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학 직원 채용에도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가족 사항이나 용모, 출신지 등을 채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립대 9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직원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류전형 심사평가표에 학위나 학력에 따른 배점을 차등화하는 학교가 28곳에 달했다. 30.4%에 달하는 수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과 강득구, 이수진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분석 발

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 '공정한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 직원 채용시 출신학교 '블라인드'하는 대학, 97곳 중 단 1곳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 내용을 보면, 채용공고에 학력 제한을 둔 곳은 70곳으로, 전체 분석 대상 대학의 80%에 육박했다.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사립대는 69곳으로 전체의 76%다.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학교는 1곳, 학력기재만 하는 대학은 3곳에 불과했다. 면접 등 전형 일부만 블라인드로 처리하는 학교도 3곳이었다.

용모나 키·몸무게 등 신체 조건이나

가족 사항, 출신지 등을 이력서에 적도록 해 채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도 있었다.

19곳(20.6%)은 신체 조건(용모·키 등)을, 22곳(23.9%)은 가족사항을 적도록 했으며, 출신지를 파악하는 대학도 1곳(1%)이었다.

목포가톨릭대는 업무수행능력이라는 평가항목에 '인상·태도'라는 배점 항목을 배점을 뒀다.

이밖에 ▲가족관계증명서·등본제출 요구(12곳) ▲가족관계 기재(8곳) 등 가족 학력이나 직업까지 기재하게 하는 대학도 2곳이었다. 홍익대는 가족 동거·부양 여부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광

신대는 구직자 가족의 최종 출신학교 명과 직장명, 직장 직위까지 기재하게 하는 등 직무와 무관한 구체적인 사적 정보를 요구했다.

◆ 인권위 "채용 시 학력 차별, 고용차별"…사격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이는 모두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직원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응시자격을 특정 학력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력이나 출신학교가 업무능력과 관련이 깊다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불거진 학력차별에 대해 '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 등으로 제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입사지원서 상 직무와 무관한 혼인여부, 가족 정보 기재 및 입증자료 제출, 출신지역 기재 요구 등은 현행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 뿐만 아니라 용모, 가족사항, 출신지를 묻는 사립대의 채용 관행은 문제

인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안착화 및 직무능력중심채용 확산을 기조로 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채용 차별을 금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사립대 포함 대학 전체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으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질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출신학교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근본적으로 차별채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채용 이후의 업무배치나 승진, 임금을 포함한 고용 전반에서 불합리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통해 구시대적인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대·연세대의료원은 직원 채용에서 응시자 출신 학교 별로 등급을 매긴 사실이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나 경고를 받았다. 이후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채용 심사에 활용되던 출신학교차등점수제를 폐지하고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그 결과 합격자 출신 대학의 수가 137개교(2017년)에서 190개교(2020년)로 증가했으며, 상위권 등급 대학의 합격률은 떨어지고 하위권 대학의 합격률은 상승했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 순천향대 'RGB 캠퍼스 허브' 현판

사업성과 전시, 사업계획 공유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 RGB CAMPUS 사업단(단장 서창수)은 31일 교내에서 'RGB 캠퍼스 허브(CAMPUS Hub)' 현판식과 사업 성과전시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차년도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의 수행성과를 비롯한 우수 R&D 과제 수행 결과와 2차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융복합 혁신 공간 'RGB CAMPUS Hub' 조성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단 현판식에는 김승우 총장, 전창완 연구산학부총장, 서창수 사업단장, 이용문 충청남도 미래성장과장, 오경석 충남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장, 양동민 충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공학관 2층에 마련된 'RGB 캠퍼스 허브'는 입주기업과 지원시설, 지원기

관이 집적화돼 있는 곳으로 기업지원의 거점 역할을 한다.

그중 입주기업을 위한 공유오피스는 융복합 특화산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Co working Space)로, 대학 및 입주기업 간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비스 등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을 갖췄다.

공유오피스에는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오피스 공간 외에도 공용 라운지, 미팅룸, 컨퍼런스룸, 탕비실 등을 갖추고 있다.

오피스 공간은 입주기업은 물론 예비 창업자 및 학생창업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100개 이상의 기업이 유연하게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순천향대는 지난 2020년 사업에 선정, 오는 25년까지 5년 간 지자체 및 대학 대응자금을 포함해 약 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현진 기자

## 내일 전국서 '수능체제 개편' 첫 모평 실시

2062개 고교, 413개 학원서 시험  
수험생 48.3만명… 전년비 387명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 개편을 적용한 첫 모의평가가 3일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3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062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1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2899명으로 재학생은 41만5794명, 졸업생 등은 6만7105명이다.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387명 감소했는데, 재학생(-735명)은 감소한 반면, 졸업생 등(+348명)은 증가했다.

이번 시험은 오는 11월 18일 실시될 2022학년도 수능의 준비 시험으로 시험의 성격과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실제 수능과 동일하다.

특히, 이번 시험은 수능 체제 개편에 따른 첫 모의평가로 수험생들이 수능 준비도 진단과 보충, 문항 수준과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가 된다. 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이 실제 수능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대해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동성고에서 수험생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9~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재학생	415,794	416,529	462,085	516,411
졸업생 등	67,105	66,757	78,098	75,963
합계	482,899	483,286	540,183	592,374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제외한 5개 과목 중 1개를 응시하면 된다.

EBS 수능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 따라 간접연계 방식이 확대된다.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 모두를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EBS는 수능 시험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 연계 비율 등을 포함한 출제 기본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험

당일인 6월3일~6일 18시까지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확정 정답은 6월14일 17시에 발표된다. 성적 통지표는 6월30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험장별 방역 대책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 또는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작년처럼 온라인 응시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https://icsat.kice.re.kr)가 운영된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6월3일 11시20분~4일 21시까지 운영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별도의 성적을 제공한다. 다만, 온라인 응시생 성적은 전체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건국대, 백신접종 직원에 유급휴가 지급

회차당 2일 최대 4일 휴가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게 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회차당 2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유급 휴가 도입으로 백신 접종을 맞은 직원들에게는 이상 증세와 관계 없이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날 이틀 동안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두 차례 접

종이 필요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 나흘간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전영재 총장은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백신 휴가를 도입하게 됐다"며 "건국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